

#첨부 1: 국내외 관련 자료 출처

① 해외 인용 출처

언론사(출처)	기사(문서) 제목	발행(게시)일
People	What Is Going On with Shen Yun? All About the Controversy Surrounding the Chinese Dance Group *선원예술단과 파룬궁의 관계 및 전직 단원들의 내부 고발	2025.04.07.
The Guardian	The traditional Chinese dance troupe China doesn't want you to see *선원예술단 공연의 숨겨진 의도 및 중국 정부와의 갈등 관계	2017.12.12.
Hazlitt	Selling China by the Sleeve Dance *상기한 The Guardian 기사 내용을 상세히 분석한 에세이로써 중국 문화와 파룬궁 운동 사이에서 선원예술단의 역할을 조명	2017.10.02.
Business Insider	Shen Yun posters are everywhere — here's everything you need to know about the mysterious show and the 'cult' behind it *선원 공연에 대한 평가, 관객 반응, 그리고 파룬궁과의 연관성	2019.04.03.
The New York Times	Behind the Pageantry of Shen Yun, Untreated Injuries and Emotional Abuse *선원예술단 단원들의 피해 사례와 내부 문화에 대한 증언	2024.08.15.
The New York Times	How a Persecuted Religious Group Grew Into a Global Movement *파룬궁과 선원의 역사, 그리고 중국 정부와의 갈등 관계	2024.08.16.
The New York Times	Ex-Dancer Accuses Shen Yun of Forced Labor and Trafficking *선원 전 무용수가 선원을 상대로 강제노동 및 아동 인신매매 혐의 집단소송	2024.11.25.
AP NEWS, CNN 등	Lawsuit alleges that young dancers for Shen Yun Performing Arts have faced abuse *상기한 소송에 관한 기사로써 소송 내용, 선원과 파룬궁의 연관성, 선원의 반응 및 이에 따른 논란	2024.11.26.
The New York Times	Shen Yun Needed Publicity. The Epoch Times Wrote 17,000 Articles. *선원예술단 홍보를 위한 The Epoch Times의 여론 조작 정황	2024.12.30.
The New York Times (팟캐스트)	Shen Yun: The Dark Side of a Dance Troupe *선원의 실체, 언론을 통한 여론 조작, 그리고 법적·사회적 파장	2025.04.02.

② 국내 인용 출처

언론사(출처)	기사(문서) 제목	발행(게시)일
국민일보	“전능신교·파룬궁 반사회적 사이비” 경보음	2022.04.14.
국민일보	“선원예술단 공연 주된 내용은 천지창조... 파룬궁 설립자를 창조주로 만들려는 것”	2023.02.16.
국민일보	“파룬궁은 교리 전파용 선원예술단 공연 중단하라”	2024.10.25.
기독교포털뉴스	파룬궁 수련자들의 선원예술단 공연 주의	2019.02.25.
기독교포털뉴스	선원, 순수예술인가 사이비종교 선전인가?	2023.02.16.
크리스천투데이	선원예술단 공연, 순수 예술인가 사이비종교 선전인가?	2023.02.16.
GOODTV	사이비 파룬궁은 어떤 단체?... 국내 포교 활발	2023.03.03.
현대종교	종교적 색채 없었던 선원예술단의 거짓말	2024.06.17.
현대종교	파룬궁이 알고 싶다	2024.06.17.
동북아신문	[탐방] 오명옥 대표 “파룬궁은 사이비종교... 피해예방 잘하자”	2015.06.23.
-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제103회 총회록	-

③ 선원예술단 측 보도자료 출처

언론사(출처)	기사(문서) 제목	발행(게시)일
The Epoch Times (한국어 버전)	중국의 박해를 고발하고 전통문화를 되살리다... 선원예술단의 탄생 *The Epoch Times(한국어 버전) 내 같은 주제의 기사 다수	2025.02.01.
The Epoch Times	Shen Yun Shows Positive Message, Says Insurance President *The Epoch Times 내 같은 주제의 기사 다수	2025.03.29.
선원예술단 (공식 웹사이트)	Escaping to the Spotlight *중국에서 신앙 때문에 박해받은 예술가들이 선원 무대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와 전통 가치를 예술로 증언하고 저항하는 이야기.	-
선원예술단 (공식 웹사이트)	Beyond the Dance: Real Persecution in China *예술을 통해 중국 내 인권 탄압의 현실을 알리고, 자유를 향한 염원을 표현하는 선원 무용수 스티븐 왕의 투쟁	-
선원예술단 (공식 웹사이트)	New York Times Coverage of Shen Yun Riddled With Inaccuracies and Exudes Bias *선원예술단의 NYT 비판 보도에 대한 반박 성명	2024.11.17.

#첨부 2 해설자료 선원예술단 공연의 실체와 우려

※ 본 자료는 선원예술단 관련 현황을 정리하고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 문서입니다. 인용된 기사와 문서는 모두 출처를 명시하여 별도 제공하였습니다. 보다 정확한 인용이나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원문을 직접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의 무단 복제, 재배포, 전제는 금지됩니다.

1. 선원예술단 국내 공연 현황과 논란

선원예술단(Shen Yun Performing Arts)은 최근 수년간 국내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정기 순회공연을 이어오고 있으며, 2025년 5월에도 대구, 춘천, 과천에서 공연이 진행될 예정이다[SCFTA 공식 홈페이지, <https://www.scfta.org/events/2025/shen-yun-2025>].

해당 예술단은 “중국 5,000년의 전통 문화를 복원한다”는 목적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 설립 배경과 공연 내용이 사실상 파룬궁의 교리와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내외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People》지는 선원 단원들이 명확한 교리 교육과 신앙 훈련을 받는다고 보도하며, 선원이 단순 예술 단체가 아닌 종교적 공동체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People, 2025.4.7., “What Is Going On with Shen Yun? All About the Controversy Surrounding the Chinese Dance Group”].

《The Guardian》은 선원 공연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신격화, 집단 구원, 종교적 상징들이 관객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다고 지적했다며, 일부 관객들이 공연의 예상치 못한 종교적 메시지에 당혹감을 느꼈다고 전했다[The Guardian, 2017.12.12., “The traditional Chinese dance troupe China doesn't want you to see”].

중국 국무원 산하의 중국반사교망(中国反邪教网)에서는 선원예술단을 파룬궁의 신념을 외부에 전파하는 “종교적 선전 도구”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연 전반이 이홍지의 교리 확산을 위한 수단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chinafxj.cn].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우려는 계속되어 왔다. 주요 기독교 단체들과 시민단체들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선원 공연장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며 “종교 위장 포교”에 대한 경각심을 알렸다.

2024년 4월 고양아람누리 앞에서도 반대 시위가 열렸고, 참여 단체들은 “선원은 단순 예술공연이 아니라 파룬궁 교리를 예술 형식으로 포장한 포교 수단”이라 주장했다[국민일보, 2024.4.26., “파룬궁은 교리 전파용 선원예술단 공연 중단하라”].

본회 역시 2025년 3월 과천시에 제출한 공식 공문을 통해 공연의 종교 선전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대관 불허를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과천시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및 예술의 자유를 존중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로 대관 여부를 심사하겠다”는 입장을 회신했다.

2. 파룬궁의 정체와 교리적 성격

파룬궁(法輪功, Falun Gong 또는 法輪大法)은 1992년 중국 길림성에서 이홍지(李洪志)에 의해 창시된 기공(氣功) 기반의 수련 체계다. 창시자인 이홍지는 파룬궁을 불교·도교·유교적 윤리를 결합한 심신 수련 체계로 주장하며, 핵심 가치로 ‘진(眞)·선(善)·인(忍)’을 내세운다.

초기에는 건강 증진과 도덕 생활을 강조하는 비종교적 수련 운동으로 출발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홍지를 신격화하고, 종말론적 세계관과 절대적 구원론을 강조하는 신흥 종교로 변화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chinafxj.cn]; [The Guardian, 2017.12.12.].

1999년, 중국 정부는 파룬궁을 ‘사교(邪教, heretical organization)’로 규정하고 전면적인 활동 금지 조치를 내렸다. 당시 중국 국무원과 공안부는 이 단체가 “사회질서를 해치고 종교적 열광 상태를 조장한다”며 이홍지를 신격화하는 활동을 비판했고, 《인민일보》 등 관영 매체는 파룬궁 조직 해산을 공식 발표했다[인민일보, 1999.7.22., “法轮功组织是非法的”].

국내에서는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총회가 2018년 제103회 총회에서 파룬궁을 사이비 종교로 규정하고, 그 이단적 요소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 이홍지가 스스로를 ‘삼위일체의 본질’이라 주장하며 예수석가보다 더 높은 ‘우주의 주’로 묘사
- ▶ 오직 파룬궁 수련만이 천국에 이르게 하며 치유와 영생을 보장받는다라는 종말론적 구원 교리
- ▶ 병의 원인을 전생의 업(業)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약물 복용과 병원 치료를 지양하도록 유도
- ▶ 이홍지의 초상, 상징물(법상, 파룬 휘장 등)을 영력 있는 물건으로 선전하고 강매
- ▶ 다수의 종말 예언과 제3차 세계대전 종식 등 비현실적 종말론 전개

이러한 교리와 실천은 단순한 기공 수련이나 철학적 명상 운동을 넘어, 신격화된 교주에 대한 절대적 복종과 구원관을 요구하는 종교적 체계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합신 교단은 “파룬궁은 이홍지와 그의 가르침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으며, 저서와 음악을 통해 신도들을 세뇌하고 있다. 그로 인해 수많은 가정이 파탄 나고, 정신 이상, 자살, 가족 살해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강력히 경고한 바 있다[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제103회 총회록, 2018].

3. 선원예술단의 실체와 종교적 연출

선원예술단(Shen Yun Performing Arts)은 2006년 미국 뉴욕에서 창설된 예술단체로, 표면적으로는 “중국 5,000년 전통문화를 복원하는 공연”을 표방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설립과 운영의 주체가 파룬궁 수련자들이며, 예술감독 또한 파룬궁 창시자인 이홍지인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선원 공연은 중국 전통무용과 시각적 연출을 통해 20여 개의 무용극으로 구성되며, 고전적인 테마와 무대미술로 관객을 매료시킨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공연에 파룬궁의 종교적 메시지가 노골적으로 삽입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서사에는 창세주의 강림과 인류 구원, 수련자의 박해와 장기적출 암시, 공연 말미에는 집단 구원을 묘사하는 장면이 포함된다[The Guardian, 2017.12.12.]; [Business Insider, 2019.4.3., “Shen Yun posters are everywhere — here's everything you need to know about the mysterious show and the 'cult' behind it”]; [The New York Times, 2025.4.2., “The Daily: Shen Yun — The Dark Side of a Dance Troupe”]

또한 공연이 후반부로 갈수록 파룬궁의 종교적·정치적 메시지가 노골적으로 드러나며, 일부 장면은 관객에게 혼란이나 충격을 주기도 한다. 실제로 공연 중 특정 관객이 ‘파룬궁이 무엇인지’를 검색하는 모습이 포착되었고, 관람객들이 중간 휴식 시간 중 당황하거나 어색해하는 반응도 있었다[The Guardian, 2017.12.12.]; [The New York Times, 2025.4.2.].

이러한 선원예술단의 실체에 대해 《People》지는 2025년 4월 7일자 기사에서 선원이 “뉴욕에 본부를 둔 중국 무용단체인 동시에 파룬궁과 밀접히 연관된 영적 운동의 일부”라고 전하며, 단순 공연단체가 아니라 특정 신앙 공동체의 일환임을 강조했다[People, 2025.4.7.].

해외 주요 언론의 심층 보도는 선원예술단이 단순한 예술단체를 넘어 파룬궁 교리를 세계적으로 확산하려는 신념 기반 활동의 일환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공연 전반에 흐르는 이홍지 중심의 신격화, 종말 구원론 등은 파룬궁 핵심 교리의 무대화로 해석되며, 이는 국내외 전문가들과 이단 대책 기관들의 평가와도 일치한다[기독교포털뉴스, 2023.2.16., “선원, 순수예술인가 사이비종교 선전인가?”].

4. 파룬궁과 선원 측의 항변 내용

파룬궁(Falun Gong)과 선원예술단(Shen Yun Performing Arts)은 자신들에 대한 각종 비판에 대해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파룬궁은 기공과 명상을 기반으로 한 전통 수련 체계로서, 특정 신앙이나 종교가 아니라 윤리적 자기 계발을 위한 자유로운 수련 공동체라고 주장한다[The Epoch Times (Korean ed.), 2025.2.1., “중국의 박해를 고발하고 전통문화를 되살리다... 선원예술단의 탄생”].

선원예술단은 또한 자신들을 “중국의 전통문화를 복원하는 순수예술단”이라고 소개하며, 공연을 통해 중국 고전문화의 아름다움과 신념을 전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일부 단원들은 공연 속 서사에 대해 “자신과 가족이 겪은 실화를 바탕으로 관객에게 박해의 현실을 알리고, 정의감을 일깨우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shenyun.org, “Escaping to the Spotlight”].

특히 공연 중 묘사되는 박해 장면에 대해 선원 측은, 중국 내 파룬궁 수련자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인권 탄압을 예술로 알리기 위한 시도라고 주장한다. 공연에 참여한 일부 단원들은 가족이나 지인이 실질적인 박해를 겪은 사례를 공연의 배경으로 제시하면서, 선원 무대는 “예술을 통한 진실의 전달”이라고 설명했다[shenyun.org]; [The Epoch Times, 2024.6.30., “Shen Yun: Reviving the Spirit of China”].

또한 파룬궁은 교회나 사원, 성직자 제도, 헌금 체계가 없으며 모든 수련이 자발적 선택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일부 수련자들은 “우리는 기도 대신 명상하고, 예배 대신 도덕을 실천한다”고 밝히며, 일반적인 종교 단체와는 구별된다고 강조하고 있다[The Epoch Times (Korean ed.), 2025.2.1.]; [shenyun.org, “Beyond the Dance: Real Persecution in China”].

5. 언론·전문가에 의한 반박과 검증

파룬궁 및 선원 측은 선원이 단순한 전통문화 예술공연이며, 종교성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내외 언론 보도, 전직 단원들의 증언, 그리고 이단 연구기관의 분석 등을 종합하면, 이러한 주장과 실제 공연 사이에는 뚜렷한 괴리가 존재한다.

예컨대 《People》지는 2025년 4월 7일자 기사에서 선원 공연이 단순한 중국 전통 문화 공연이 아니라, 파룬궁의 종교적 신념을 예술 형식으로 전달하기 위한 도구라고 보도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선원은 파룬궁 창시자인 이홍지에 의해 공동 설립되었으며, 단원들은 “파룬따파를 연습하는 것이 단순한 명상이 아니라 삶 전체를 이끄는 마음가짐이며, 타인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 향상에 헌신하는 태도”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증언은 선원이 종교성과 무관하다는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People, 2025.4.7.].

공연 클라이맥스에서는 명상하는 수련자와 하늘에서 내려오는 승려들, 소용돌이치는 드레스를 입은 여성들이 등장해 천상적 황홀경과 영적 구원을 암시하는 장면이 펼쳐진다. 《The Guardian》은 이와 같은 장면을 “세상의 중생들을 구원하고 악을 해소하기 위한 종교적 메시지의 은유”라고 분석했으며, 실제로 선원 창립자인 이홍지는 “내가 이 일을 이끌겠다”고 밝힌 바 있다[The Guardian, 2017.12.12.].

선원은 단원들과 언론을 관리하는 체계적인 구조를 통해 외부 이미지 통제에 집중해왔다. 《The New

York Times》는 2024년 12월 30일자 보도에서, 《The Epoch Times》가 선원예술단을 홍보하기 위해 2009년 이후 17,000건 이상의 찬양 기사를 생산했으며, 사내 검열 문서를 통해 “Shen Yun is saving people”, “Gods are dancing onstage” 등의 표현을 사용할 것을 내부적으로 권장해왔다고 밝혔다. 또한 선원은 공연 직후 기자들을 호텔에 대기시켜 인터뷰를 진행하고, 부정적인 표현은 사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방식으로 여론을 관리해온 것으로 전해진다[The New York Times, 2024.12.30., “Shen Yun Needed Publicity. The Epoch Times Wrote 17,000 Articles.”].

단원의 내부 처우역시 상당히 폐쇄적이고 규율 중심적인 환경으로 알려져 있다. 2025년 4월 2일자 《The New York Times》 팟캐스트 “The Daily”에서는 전직 여성 단원들의 증언을 인용하여, 일부 단원들이 정기적인 체중 측정과 공개적 비난을 받았고, 동료들에 의해 식사량이 통제되었으며, 선원을 떠날 경우 정신적 파멸이나 신의 저주를 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들었다고 보도했다[The New York Times, 2025.4.2.].

이와 함께 AP통신은 2024년 11월 26일 보도에서, 선원의 전직 단원 창춘커(Chang Chun-Ko)가 미국 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하며, 선원이 해외에서 모집한 청소년 무용수들을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동원하고, 의료 지원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AP, 2024.11.26., “Lawsuit alleges that young dancers for Shen Yun Performing Arts have faced abuse”].

국내에서도 이러한 종교적 선전의 실체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2023년 서울 국립극장 앞 반대 시위에서 한국기독교이단상담연구소 박형택 목사는 “이 공연은 창시자 이홍지를 창조주로 묘사하며, 종교적 선전의 성격이 강하다”고 경고했으며 일부 관객은 공연을 관람한 후 파룬궁과 관련된 종교 단체라는 사실을 사후에 인지하고 당혹감을 표하기도 했다[국민일보, 2023.2.16., “선원예술단 공연 주된 내용은 천지창조… 파룬궁 설립자를 창조주로 만들려는 것”]. 이는 공연이 종교적 메시지를 명시하지 않고 일반 문화 예술로 위장된 채 전달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6. 위장 포교의 사회적 위협과 대응 과제

선원예술단 사례는 이단 사이버 단체가 예술이라는 외형을 통해 종교적 메시지를 위장하여 전파하는 대표적 위장 포교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 과거에는 전단지 배포, 거리 강연 등 직접적인 전도 방식이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공연·전시·요가·기공 등 문화 활동을 활용한 우회적 접근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

기독교 이단 연구자들은 이단 단체들이 예술 공연을 포교 수단으로 활용하는 이유에 대해, “사람들의 감성과 미적 감탄을 자극함으로써 기존의 방어심과 경계심을 무너뜨리는 효과”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실제로 선원 공연은 전통무용과 음악을 앞세워 고전적 감동을 유도한 후, 공연 후반부에 종교적 메시지를 삽입하는 구성을 반복적으로 채택하고 있다[기독교포털뉴스, 2019.2.25., “파룬궁 수련자들의 선원예술단 공연 주의”].

GOODTV와의 인터뷰에서 박형택 목사는 “이 공연은 이홍지를 창조주로 신격화하는 매우 위험한 예술 활동이며, 파룬궁은 자살, 가족 살해 등 극단적 사례가 보고된 반사회적 사이버 집단”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GOODTV, 2023.3.3., “사이버 파룬궁은 어떤 단체?... 국내 포교 활발”]. 현재 국내에는 약 270여 개의 파룬궁 수련장이 운영 중이며, 3,000여 명에 달하는 신도들이 활동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위장 포교는 공공시설의 종교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시민의 신앙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연장의 대관 심사 및 문화 프로그램 기획 시 종교성 여부와 교리 전파 목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교계와 시민사회는 이러한 문화포교 전략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정보 제공과 교육 활동을 통해 공론화 작업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7. 결어

선원예술단은 겉으로는 중국 전통문화를 복원하는 예술단체를 표방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특정 종교 교리와 창시자의 세계관을 예술 형식으로 표현하는 선전 매체로 기능하고 있다. 공연 전반에 나타나는 창세주 서사, 박해와 구원, 신격화 장면 등은 종교적 메시지를 은유적으로 전달하며, 관객은 공연 이후에야 그 종교적 성격을 인식하게 된다.

특히 해당 예술단의 설립 및 운영 주체, 공연 내용의 구성, 내부 훈련 방식, 언론 홍보 전략 등 여러 측면에서 확인되는 정황은, 선원예술단이 단순한 문화공연 단체라기보다는 하나의 신념체계 전파를 목표로 하는 구조화된 활동 조직임을 보여준다. 예술을 표방하지만 공연 전반에 종교 교리와 세계관이 은유적으로 삽입된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이러한 위장 포교 방식은 외형적 화려함과 달리 내면적으로는 특정 교리를 전파하고 종교적 세계관을 정당화하는 목적을 담고 있으며, 이는 단지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 사회의 가치와 문화 정책의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할 공적 사안이다. 이에 사회적 우려와 객관적 근거에 따라, 선원예술단의 공연이 종교 교리를 예술로 포장한 선전 활동임을 명확히 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선원예술단의 공연은 종교적 선전 성격을 내포한 활동으로 보아야 하며, 단순한 문화 행사로 보기 어렵다.

둘째, 공연 내용이 명확히 종교적 세계관을 담고 있음에도 종교성을 은폐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민의 알 권리와 종교적 판단을 침해하는 방식이다.

셋째, 앞으로 유사한 형태의 위장 포교와 문화 포장의 사례에 대해서는 교계와 시민사회, 그리고 문화 행정 당국이 함께 명확한 기준과 판단력을 갖추어 대응해 나가야 한다.